

건강 칼럼

피부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 발진

일 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면... 발진은 많은 질환의 징조이다.



최영득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전북지부 원장

▲ 두드러기 두드러기는 매우 흔히 나타나는 피부질환으로 음식물, 약물, 일광노출, 피부 압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두드러기가 생길 때는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외부 물질에 대한 피부의 과민반응으로...

성 소염제의 복용을 금하고 더운 목욕, 과도한 운동, 음식 등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해야 한다.

▲ 접촉피부염 접촉피부염은 외부의 자극성 물질 또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항원의 피부 접촉 때문에 발생하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외부 물질에 대한 피부의 과민반응으로 특정 물질에 민감한 사람에게 발생한다.

두 가려움증, 발적, 부종, 물집, 피부의 탄력 소실, 건조증, 진물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접촉피부염으로 인한 발진은 원인 물질과 접촉된 피부에 나타난다.

▲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운집된 물집과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다.

방접증을 받은 사람의 신경세포에 잠복된 수두 바이러스의 활동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발진이 발생하기 평균 4~5일 전부터 피부결을 따라 통증과 감각 이상이 생기며...

대상포진은 일주일 동안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늦어도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처방법이다.

대상포진은 주로 고령자, 암환자,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잘 발병한다. 젊은 사람도 과로, 스트레스 노출되면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다.

독자제언

타인의 인생 짓밟는 음주운전

얼마 전 방송매체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앞날이 창창한 대학원생이 음주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의족에 의지 한 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방송되었다.

것이다. 자신보다 더 아까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 잔 정도는 관찮겠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이렇듯 소중한 이들의 생명과 삶을 파탄으로 초래할 수 있다.

독자제언

인터넷 먹튀 반칙 '조심 또 조심'

인터넷 공동구매와 중고거래 등 편리하고 저렴한 인터넷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근에는 전문 프로그래머까지 고용한 수법까지 등장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거래 이기에 누구든 인터넷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그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

사설

전북도의 지역 건설사 살리기 행보

전북도가 예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게 역력하다. 지역의 건설 사업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가대나 순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형건설사 임원진들이 덕담차원에서 한 말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한 말인지는 전북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새단금 내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건설업체들로부터 불만 소리가 들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와 관련한 건설물량이 반감지지만 않다는 불만을 말이다.

대형 건설 현장마다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설치고 있음은 그 모양이 좋지 않다.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다 쟁겨 먹고 있다는 지역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뿐인가?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하다. 정규 일자리가 예나 지금이나 적은 까닭에 비정규직뿐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39%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는데 지금은 40%를 훌쩍 넘었으리라는 짐작이다. 고용 구조의 현실이 이런데도 하릴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주매일

용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